

MBC사우회 등산대회

걸을 수 있다는 행복, 함께 걸으니 더 빛났다



모처럼 맑은 가을 햇살이 산을 휘감은 지난달 22일 '만나면 좋은 친구' MBC사우회 등산대회가 열린 우면산 일대는 우정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88살의 오정수 사우를 비롯해 지난해와 비슷한 60여 명의 사우들이 참가한 이번 등산대회는 오전 10시 반, 남부터미널역을 출발해 우면산 둘레길과 숲

길을 걸어 매현 시민의 숲까지 1시간 반 동안의 산행으로 진행됐다. 이번 코스는 걸보기와 달리 하늘을 향해 뻗은 아름드리나무들의 숲길이 있

고 완만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이어졌는데,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 완주에 성공했다. (2면에 계속)

MBC,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1위/ 안중필 언론상 수상

MBC의 유튜브 뉴스 채널 'MBC NEWS' 구독자 수가 지난해 7월 YTN을 제치고 국내 유튜브 뉴스 채널 1위로 올라선 가운데 지난 10월 7일 기준, 국내 방송사 가운데 처음으로 구독자 600만 명을 돌파했다. 조회수 역시 연속 1위로 41개월째 독보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MBC가 시사주간지 <시사IN>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조사에서 응답자의 22%의 선택을 받아 2위 KBS(11.2%)를 두 배 차이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유튜브와 팟캐스트 등에서도 <뉴스데스크>가 1위, <손석희의 질문들>이 7위,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9위로, MBC의 보도/시사 프로그램 3개가 신뢰도 TOP10에 올랐다.

■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MBC '버추얼 라이브 페스티벌'이 지난 10월 18일~ 19일 이틀간 서울 상암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윤도현과 코요테, 존박, 플레이브(PLAVE), 이세계아이돌 (ISEGYE IDOL)을 비롯한 최정상 버추얼 아티스트들이 가상과 현실, 세대와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음악 경험을 선사했다.

■ MBC가 지난 10월 21일,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싸워온 공로로 제37회 동아투위 안중필 언론상 본상을 받았다. 안형준 사장은 "MBC는 늘 그랬듯이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며, 무소의 뿔처럼 흔들리지 않고 한발 한발 민주주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본사 소식

원하는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콘텐츠 플랫폼

광고 플랫폼

COEX 9T09CUBE

대한민국 옥외 광고의 메카, 코엑스

내 곁의 작은 라디오, 스마트 라디오

소통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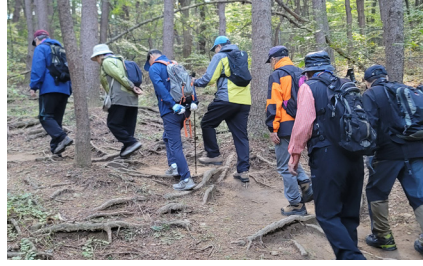
Global Content & Platform Leader

www.imbc.com

iMBC 연예

생생한 현장 & 똑똑한 뉴스

미디어 플랫폼



해마다 몸은 늙지만 그럴수록 걷는다 내리막길에서 조심스럽거나 몸이 불편한 일부 사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하지만 나이는 어쩔 수 없었다. 일행 중에 누군가가 “다들 잘 걸으신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오늘 난 무릎에 테이핑을 하고 나왔어”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사우가 있었고, “다리의 힘이 빠진다”고 한탄하는 사우, “몸 상태가 해마다 다르다”고 하소연하는 사우도 있었다.

“그럴수록 더 걸어야 해” “그렇지,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말도 있어” “그래도! 세월의 무게가 있는 거지. 나이 들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지금이 축복이야. 걸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오고 가는 격려 속에 긴 행렬을 이룬 사우들은 지금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이 야말로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 인생의 축복임을 다시금 느꼈다.

몸은 달라져도 마음은 여전히 젊음 중간 쉼터에 이르자, 누군가는 배낭에서 떡을 꺼냈고, 보온병에서는 커피 향이 퍼졌다. 인천막걸리, 장수막걸리, 화이트 와인까지 나오고, 육포, 양파와 고추장 안주도 따라 나왔다. “이런 맛에 산에 오는 거 아뇨?” 누군가가 웃으며 말했다. 콩 반죽을 나누듯이 떡을 나누고, 종이컵에 따른 막걸리가 한순배 도는 사이, 와인잔에 따라 나눠 마신 화이트와인병은 금새 바닥이 났다.

숲속의 작은 축제가 열리는 동안 사우들은 등산대회에 나오지 못한 동료와 선후배의 소식을 듣게 되거나 “70살은 여전히 어린애”라는 말의 출처가 시진핑 주석에게서 나왔다는 등의 세상사도 알게 되었다. 시 주석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70대 중후반 사우들의 생생한 두 다리를 보면 정말이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살아있음의 증거, 함께 있음의 기쁨
이번 대회 감동의 주인공은 올해 84살의 신준우 사우. 지난해까지도 건강

했는데 감기를 앓고 나서 갑자기 한쪽 다리가 불편한 거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르막길에서 동행한 부인의 부축을 받고, 내리막길에서부터 도착 때까지 최정일 사우회 산악회장과 보조를 같이하며 완주해 낸 것. 그는 자신을 도와 완주하게 해 준 두 사우에게 도착 후 식당에서 막걸리를 따라주며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곁에서 바라보는 부인의 눈가가 촉촉히 젖는 듯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노영인 사우가 흥일점으로 참석해 동행했다. 남자 사우들로 인해 목직하게 깔린 산행의 분위기가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부드럽게 풀어졌음은 물론이다.

두 발로 걷는 지금이 축복입니다
사우회 등산대회는 사실상 박한성 전 사우회 산악회장이 총무로 영입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때 100여 명의 사우들이 참석했으며 1박2일 산행까지 이루어졌다. 올해 팔순(실제나이 82살)을 맞은 그는 사

우회로부터 받은 10만 원에 20만 원을 보태 십사일만이라면서 30만 원을 사우회 발전기금으로 내기도 했다.

5년 전 스키를 타다 입은 부상 후유증으로 이번 산행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내려올 때 다리가 아프다-그는 도착지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식당에서 오랜 인연과 세월의 회포를 풀었다.

점심 메뉴는 흑돼지 김치찌개. 최정일 사우회 산악회장은 “내년에도 같이 걸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건강을 위한 축배를 제안했다. 가을빛이 완연한 우면산 둘레길과 숲길을 걸은 발자국들은 단순한 등산의 흔적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함께 이겨내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감사의 여정이었다. 식탁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사우회의 가을은 붉어지는 단풍잎처럼 물들어 갔다.

사진촬영: 전 사우회 사무처장 이석일
인터뷰/정리: 편집장 윤영무

MBC 헬기 촬영감독, 김종길

창공에서 담은 진심, 지상의 세상사



헬기 안에서 잠시 포즈를 취한 김종길 사우



야간촬영을 준비중인 MBC 헬기

방송용 동일 기종으로 세계에서 5대밖에 없다는 MBC 헬기 촬영감독이었던 나는 그 헬기를 타고 19년간 하늘을 날고 있었다. 회전 날개의 진동이 내 척추를 흔들 때 나는 100m 상공에서 지상의 거의 모든 사건과 현장을 조감(鳥瞰)한 영상을 중계했다. 강을 보려면 산으로 올라가야 하고, 산을 보려면 강으로 내려와야 하듯이 세상의 맥을 짚기 위해서 인간 세상을 굽어봤다.

‘정주영 회장이 소 떼를 몰고 DMZ를 넘어가는 유사 이래의 장관, 드라마 ‘왕초’의 첫 항공촬영,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봉하마을 상공에서 본 부엉이 바위... 시청앞 광장에서 일렁이던 2002 월드컵 열기의 물결, 그리고 하루가 멀다 않고 새벽바람을 맞으며 ‘출근길 도심’의 맥박을 읽고 ‘날씨’를 알렸다.

헬기는 체공 25시간, 50시간 등의 순서로 검사가 진행되며 부품 교환을 범으로 정하고 있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피사체로 하는 MBC 헬기가 무사고 운행 기록 1만 시간을 향해가고 있었을 무렵, 새로운 경영진은 회사가 어렵다며 헬기의 매각을 추진했다. 한 몸이었던 5명의 크루(기장, 부기장, 기술, 정비, 촬영감독)는 하강했다. “선배, 이제 드론이면 돼요. 위험도 없고 연료비도 안 들고...”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몹시 서운했다. 상공의 바람과 회오리의 리듬을 느끼며 셔터를 누르던 그 목직한 감각에 대해서, 그리고 앵글이 훑어간 군중의 표정

에서 시대를 예감하던 순간의 떨림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았다. 도로와 아파트로 범벅이 된 도시와 개발로 침식되는 국토를 지나, 나는 멀리 산능선을 넘어오는 구름과 낮게 깔리는 붉은 석양에 넋을 잃곤 했다. 그럴 땐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않는가?

하늘바라기 -MBC 헬기 박용규 전 기장과 노모의 만남/김종길
(전략) **찾아와서 쏟아 놓는 자손들 사는 얘기**
화석인 듯 검버섯이 호사하는 이유다
알짜한 빗마루의 대추 몇 줌과 마당 한 칸 수북한 청도 반시가
피우고픈 내 호랑의 꿈으로 익는 10월
용규야 내 새끼야
네가 몰고 날아온 쇠 잠자리는
내 막춤 돌리는 팔랑개비다
은 마을이 따라 도는 팔랑개비다 (후략) ※호랑; 바지 안주머니

70억 원에 도입한 MBC 헬기는 고가의 촬영 장비를 탑재해 100억 원짜리가 되었는데 나중에 멕시코로 팔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은퇴 후 나는 두 권의 ‘영상제작기법’에 관한 책을 썼고 MBC 아카데미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후배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8월 5일과 6일 이틀간 미국에서 상영된 「홍도야 우지 마라」는 지난해 마지막 번사 최영준 감독과 충남 영화인 협회 고문인 내가 콤비를 이뤄 찍은 영화다. 내년엔 시집을 낼 생각이다.

진동하는 몸을 잡고 땀과 숨을 담아 촬영했던 나는 차라리 망치와 정으로 돌을 다듬어 탑을 쌓는 공중의 석공이었을지도 모른다. 드론처럼 완벽한 영상은 아니었을지라도 똑같은 하늘 아래 부대끼며 살아가는 세상의 참모습을 공중의 헬기 높이까지 쌓으려 했으니까.

아-진심의 순간들이여!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불러도 대답 없는 MBC 헬기여!

MBC사우회장배 친선 바둑 대회

AI 시대에도 바둑은 죽지 않는다

A조 최동윤/B조 김영균 사우 우승



프로기사 한철균 사범의 지도대국



A조 우승자와 사우회장/B조우승자와 바둑동호회장



AI가 인간의 계산력과 전략을 앞서는 시대라지만 바둑은 여전히 사우들의 정신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햇수로 33년째를 맞은 역사와 전통의 「MBC 사우회 회장배 친선바둑대회」가 지난달 15일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바둑TV 해설가인 한철균 프로 9단이 대회 심판장을 맡은 가운데 이진섭 바둑동호회 회장 등 16명의 사우가 참가해 5급을 기준으로 A조와 B조 각각 8명씩 나뉘어 토너먼트로 진행됐다.

A조 결승에서는 최동윤 사우가 이진섭 사우를 접전 끝에 물리쳐 우승을 차지했고 준우승은 이진섭 사우에게 돌아갔다. B조 결승에서는 김영균 사우가 선남준 사우를 6집 차이로 이겨 우승했고 선남준 사우가 준우승했다.

우승자들은 사우회장으로부터 1992년부터 내려오는 전통의 우승컵과 부상이, 준우승자들에게는 별도의 부상이 주어졌다. 아울러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이 전달됐다.

A조 우승자인 70대 중반의 최동윤 사우는 “70~80년대 신문 연재 바둑을 열심히 공부한 덕을 보긴 했지만 상대방이 막판 한 수를 잘못 두는 바람에 운이 좋아 이긴 듯하다”고 미소를 지었다.

B조 우승자인 80대의 김영균 사우는 “15년 전 치매 예방과 무료함을 달래려고 바둑을 시작했었다”면서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결승까지 오르게 해 준 덕분이 아닌가 싶다”며 겸손해 했다.

토너먼트에서 탈락한 참가자들은 패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대회 심판장인 한철균 프로 9단과 1대 다자 대국을 두거나 그로부터 묘수의 비밀을 배우며 또 다른 즐거움을 나눴다.

한철균 프로는 “요즘 AI 따라두기 때문에 초반 50수까지는 거의 같은 포석이 이루어지나 중반부터 본인의 기풍이 나오게 된다”면서 “수를 읽는 탁월함이야 AI가 인간보다 우월할 수 있지만, 인간의 창의와 실수의 아름다움을 인공지능이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한 수를 두고 웃고, 눈빛이 오고가면 마주 앉은 상대는 다시 동료가 되었다. 이번 대회는 바둑의 정신, 곧 AI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 묘한 끈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서로 격려의 박수를 쳐 주는 가운데 막을 내렸다.

바둑대회 참가자 기념촬영



고전동호회

AI가 번역을 대신해 주는 요즘 세상에 2천 년 전에 나온 논어나 맹자 등 사서 삼경이나 천 년 전에 나온 자치통감을 원문으로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퇴직 후에 다니는 강독(講讀, 글을 읽고 그 뜻을 밝히는 일) 모임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언론사 사우회 가운데에서는 우리 사우회의 고전동호회가 유일할 것이다.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고전 강독 모임이 우리 사우회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단연 이견세 사우 덕이다. 그는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위원으로 활동했던 전문가로 고전동호회에서 훈장님으로 불린다.

수업은 사우회 사무실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다. 취재를 빌미로 양해를 얻어 청강을 한 날은 마침 「사기영선(史記英選,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가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에서 중요 부분을 뽑아 1796년에 간행한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을 강독하는 시간이었다.

회원들이 먼저 예습한 원문을 낭독하고 해석하면 이견세 훈장이 원문이 쓰인 당시 상황과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을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원문 강독을 해주는데 듣는 이로 하여금 글쓴이의 숨결을 느끼게 하고 흠어졌던 마음을 정돈시켜 준다. 도서관에서 번역서를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 들게 된다. 후자는 사우회 고전동호회의 한문 강독 수준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수업을 청강하여 보니 예습을 철저히 하고 훈장의 강독을 듣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장도 누구나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더구나 “번역본을 읽으면 공부의 맛을 느낄 수 없다”는 게 회원들의 일치된 말이었으므로 “한번 들으면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듯 싶었다.

입회비는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있을 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점심을 산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어쩌서 논어는 이 문장을 책의 첫머리로 삼았을까? 오늘날 즐거운 일이 많고 많아도 스스로 깨닫고 익히는 기쁨만큼 오래가는 것은 없을 것임을 2천 년 전에 알았기 때문이리라.



청죽회

시설부문 모임인 청죽회는 깊어가는 가을, 지난 10월 23일 종묘에서 21명이 참석해 고궁해설사의 안내와 설명을 받으며 깊이 알지 못했던 역사공부를 하고 배우며 탐방모임을 가졌습니다. 탐방 후 종묘 건너편 육회촌에서 푸짐하게 육회로 점심을 먹고 마무리 했습니다

『난앞에 베이다』

- 박찬순 사우의 첫 장편소설

200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가리봉 양꼬치」가 당선된 이후 박찬순 사우(편제)가 쓴 첫 장편소설. 이 소설은 30대 중반의 여성 서흥화가 로펌 법률자료 번역과 다큐멘터리 감독 보조 등의 서울에서의 일을 접고 경북 안동 낙동강 상류 마을로 귀농해 류포의 (춘란연구소장)의 의문의 죽음을 추적하는 이야기다. 문화가 다른 독일의 수도원과 한국의 시골 마을을 오가며 전개되는 추리의 서스펜스가 흥미진진하다.

시간안내



사우탐방

INTERVIEW



와인 한 잔에서 시작되는 인문학의 정원

황헌 교수의 두 번째 향해



방송기자에서 인문학자로

경기대 특임교수 황헌. 그는 교수 이전에 뉴스의 파도를 헤치며 살았다. MBC 기자, 앵커, 파리 특파원, 논설 실장, 토론 진행자, 뉴스의 광장 앵커, 보도국장 등으로 여러 연대(年代)와 시간의 한복판을 뛰었다. 하지만 그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진 그가 7년 전, 2018년 8월에 정년 6개월을 남기고 홀연히 마이크를 내려놓고 방송 현장을 떠났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후회가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조직을 떠난 대신 자유를 얻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제가 좋아하는 철학과 인문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마음껏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거지요”

퇴직과 동시에 아내와 함께 인도, 미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곧바로 책 속으로. 그리고 글쓰기에 빠져들었다. 사건의 표면을 쫓던 기자의 눈에서 인간과 세계의 근원을 더 깊게 응시하는, 그의 표현대로 ‘헤드라인 속에 숨은 인문학적 식견’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두 번째 인생 향해가 시작되었다.

퇴직 1년 뒤, 2019년 중반부터 페이스북에 와인을 통해 인생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와인의 정원’이란 제목의 글을 매주 한편씩 거의 1년에 걸쳐 올렸다. 글을 연재하는 동안 그의 친구들, MBC 선, 후배, 지인들로부터 ‘내용이 너무 좋다, 책을 내라’는 격려가 쏟아졌고 어느 유명 출판사로부터

출판 제의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온 책이 2020년 12월 출간된 『와인잔에 담긴 인문학』이다. 와인을 단순한 음료나 미식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문화, 역사, 장소, 노동, 시간이 응축된 매개체로 본 책은 기자의 관찰력과 인문학적 사유가 어우러져 이해하기 쉬우며 유익한 데다 단단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재미까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만 5천 부가 팔렸고-요즘 만 부 이상 팔리면 베스트셀러다-곧 7쇄 인쇄에 들어간단다.

“옛 편집국장들의 모임에 나갔더니 어느 동료가 책을 오전 9시부터 읽기 시작해 오후 3시까지 다 읽었다고 하더군요” 그가 내게 책을 펼쳐 보이더니 간결한 문체,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몇몇 단락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읽기 쉬워야 한다는 걸 글 쓰는 근본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문학책이 문장을 짧게 쓴다고 해서 써지는 게 아니고 독자들에게 울림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많은 독서와 현장 답사,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저자의 사유가 층층이 기억의 뇌에 쌓이고 쌓여 그것들이 상호 연관 작용을 일으킬 때 비로소 실타래가 풀리듯 문장이 완성되는 것이라.

“앵커 할 때부터 틈틈이 철학과 관련 서적을 숙제하듯 열심히 읽고 메모했지요. 영국 카디프대학에서 석사 과정 연수 시절 유럽 여행 맛을 들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파리 특파원 시절 주말마다 유럽의 모든 국가와 도시, 와인너리(winery, 와인양조장)를 다니며 와인, 철학, 역사, 문학 등 인문학의 많은 관심사를

입체적 지식, 저만의 식견으로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 건져 올린 문장과 각국의 현장에서 채집한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의 말걸 하나하나로 자신의 와인잔을 채워온 그는 특파원을 마치고 귀국할 때 좋은 와인 350 병을 가지고 들어올 정도로 와인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세금을 다 내고 들어왔지요. 제가 와인을 사는데 돈을 꽤 많이 쓴 편이지요. (웃음) 여하튼 퇴직 후에 국내 유명 서점에 자주 들러 관련 서적을 구입해 읽었는데 쉽고 재미있는 와인 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와인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기대는 좀 했지만...” 그가 말꼬리를 흐리며 겸연쩍게 웃었다.

과연 책이 출간되어 시판되기 시작하자, 서울대 최고위 과정, 생산성본부 등등 여기저기에서 강의 요청이 이어졌다. 2022년 9월에는 《황헌과 함께 떠나는 와인이 있는 인문학 여행》 8주간의 열린 강좌가 시작됐다. 이 강좌를 수료한 사람은 지금까지 150명. 지금도 제11기 강좌가 서울 강남의 한 이탈리아 식당에서 열리고 있다.

무엇보다 2022년 12월, 경기대학교로부터 특임교수 제안이 와서 총장 면접을 보았는데 경기대학교는 이듬해 2023년 1월1일 자로 서비스 전문경영대학원 특임교수로 정식 발령을 냈다. 특임교수는 정년이 없다.

그는 강단에 서자마자 학생과 교직원 을 대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열어 2023년 당시 104세의 김형석 교수를 첫 손님으로 모셨다. 김 교수는 “같은 책이라도 접었을 때와 아흔을 넘겨 읽었을 때의 느낌이 전혀 다르다. 이는

본인이 성장했다는 의미이니 겸손하게 성장의 열매를 숙성시켜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의 귀에 꽂혔다.

곧바로 학교 측을 설득해 학교가 수강생에게 점심 티켓을 제공하는 <황헌 교수와 함께하는 인문학 런치> 강좌를 개설했다. 올 2학기 6회 강의 수강 신청은 80명이 정원인데 일찌감치 마감됐다. 함께 배우고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 인문학 공부의 배움이 아니라 나눔이 되는 것이라.

특종을 전하던 날카로운 펜 끝에서, 앵커석의 낭랑한 목소리에서, 보도국장의 책상에서, 우리나라 방송계 네티리스트를 대표하는 얼굴 중의 한 사람이었던 황헌 사우는 인문학 교수, 작가, 강사로 변신해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출발점’을 보여준다. 하고 싶은 일을 이것저것 재지 말고 두려움 없이 하다 보면 두 번째 향해의 향기는 와인처럼 그윽하고 달콤할 것이라는 걸 그의 표정은 말해준다.

지금은 강화에서 고성까지 펼쳐진 DMZ 평화의 길 510km를 걷고 있다. 영락없는 열성과 황헌의 앞날에 인문학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와인, 인문학의 잔을 채우다

나도 MBC 가족

마음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

서유석의 MBC와 나의 노래



인생 3막



뽀빠빠 뽀빠빠~ 트럼펫의 전주가 팽팽히 울려 퍼지고 나면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라는 첫 소절로 시작되는 노래, 《가는세월》은 48년 전, 1977년부터 한국인의 마음속에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라, 세월과 삶을 직시하게 하는 울림이었다. 그 노래의 주인공, 서유석. 그는 흔히 통기타 가수인 줄 알지만 결이 조금 다르다. 그는 음유시인에 가까웠다. 노래하는 형식을 빌려 인생철학을 건네고 음악과 방송을 통해 시대와 대화했다.

노래가 철학이 되다

유행기 밴드가 작곡한 그 노래는 원래 제목이 ‘하지만 이것만은’ 이었다. 그런데 이 제목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여 그들에게 제안했다. “세월이 가는데 뭘 말들이 많은가...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 하지 않았나, 가는 세월 따라 물 흐르듯 사는 거지, 제목을 바꿉시다!”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은 그가 만든 직설적이면서 시적인 《가는 세월》로 바뀌게 되었다. 가는 세월 붙잡을 장사가 있을까?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 이나 부르는 이가 똑같은 심정으로 매달리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모태 신앙인인 그는 요즘도 간증을 하는데 어디를 가도 가장 먼저 전도서 1

장 1절에서 11절까지 암송하고 《가는 세월》 앞에서 겸허해지는 삶의 증언을 시작한다. 최근 조직폭력배에서 목사가 된 분들에 대한 강연을 오산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헛됨을 직시하면서도 삶의 희망과 믿음을 놓지 않았던 자신의 철학이 노래에 스며든 사연을 신앙적으로 고백했다.

우연이 만든 필연, 라디오 방송

《가는 세월》이 시대를 울리면서 그의 주가도 따라 올라간 1970년대 후반, 《MBC-FM 정오의 희망곡》 진행자가 일본 출장을 가는 바람에 그가 대타로 나섰는데 일주일 뒤에 온다던 진행자는 귀국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맡았다.

“제 노래가 한참 떠서 가수 활동을 해야 했는데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 달라고 통사정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청취율이 10%나 올라갔다. 여세를 몰아 1981년 라디오 아침 프로그램인 《푸른 신호등》, 그리고 저녁에 《MBC 희망음악, 서유석입니다》의 진행을 맡았다. 《푸른 신호등》은 1995년까지 16년 7개월 동안 진행했다. 한 프로그램을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가 드물었다.

가수인 그가 방송인으로서 주목받은 이유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라디오가 대중문화의 중심이었던 탓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의 철학적 언어와 따뜻한 음성 그리고 음악적 감수성이 청취자와 방송사 양쪽에 신뢰를 준 점도 분명히 작용했다.

그 덕분이었을까? TV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해 MBC TV의 주간지 격인 《여의도 1번지》와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스

포츠 엔터테인먼트인 아침 TV 프로그램 《스튜디오88》을 맡아 직접 현장을 뛰며 진행했다.

서울올림픽이 끝난 이듬해였다. 한중 수교가 안 된 1989년, 어느 날 뜻밖에 중국 흑룡강성으로부터 「참조:MBC, 수신:서유석」으로 된 초청장이 날라왔다. 회사의 허락을 얻어 초청장을 비자 삼아 현지로 간 그는 동북 3성에서 모였다는 200여 명의 중국교포의 환호를 받으며 《홀로 아리랑》을 불렀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6.25전쟁 중 가족과 함께 철길을 따라 남으로 피난을 가다가 피난민 중 중공군이 끼어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 공중 폭격을 당했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무고한 피난민들이 죽어 나갔고 그의 가족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홀로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의 변주가 될 수 없었다.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한 소년의 기억과 상처가 녹아든 체험이고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쓸쓸함을 위로하는, 민족 전체가 겪은 눈물이 흐르는 강이었다. 우연히 《홀로 아리랑》이 평양에서 허용된 남한의 노래 2곡 가운데 하나라는 말을 탈북자인 북한의 예술인 박 성진 씨에게 듣고 깜짝 놀랐다.

“세월도 이념도 막지 못하는 게 노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노래가 남과 북을 감싸 안으며 다리가 되는구나 싶을 땐 가슴이 뛰더군요”

기억 속의 그림자

그의 히트곡 《그림자》는 전설 같은 사연이 있다. 담당 PD가 그에게 자신이 직접 작사한 드라마 주제곡 가사를 주며 작곡을 부탁했을 때 무심결에 가사를 책갈피에 넣어두고 1년 동안 깜박 잊고 지냈다. 방송 하루 전에 이를 알게 된 PD의 하얗게 변한 얼굴을 보고 나서 하룻밤 만에 떠올린 악상을 가지고 다음 날 방송 40분 전, 통기타를 치며 녹음한 곡을 넘겨 담당자의 피를 말렸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방송 중에 “재미도 없는 KBS가 수신료를 올렸다”고 말했다가, 이 방송을 들은 KBS 사장의 지시로 그에게 KBS 출입 금지와 출연 금지가 내려졌다.

“그러니 나아말로 MBC 사람보다 더 MBC 사람이 아니겠소, 하하하” 유머 같은 진담이었다.

그는 지금 마포문화재단 이사장이다. 문화예술인들의 그늘막이 되어주고 그들의 목마름을 덜어주려 애쓴다. 예전 같으면 상대방에게 “뭐라고(그게 말이 돼)?”했을 터인데 이젠 어떤 경우라도 “아, 그렇습니까?”라고 자신을 낮춘다. 이사장이라서가 아니라 세월의 여유에서 나온 겸손일 것이다.

그는 올해 MBC 사우회 연말 행사의 무대에 오르게 된다. 옛 사우들의 마음을 어떤 말과 노래로 붙잡을지 알 순 없지만 한때 방송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던 벗들을 마주하는 순간이니 소회 또한 남다를 터이다. 이지적인 깊은 두 눈은 ‘지난날의 땀과 웃음, 그리고 우정을 되살려 모두의 가슴을 울릴 것’이라고 말하는 듯하였다.

인터뷰/정리: 편집장 윤영무

/회/원/동/정/

DCC코칭센터 대표 취임
강영은 (ANN)

낭독과 소통을 통해 마음치유 교육을 이어온 강영은 사우가 DCC 코칭센터(Develop Connect Care Coaching Center)의 법인대표로 취임했다.

- ▲인생을 돌보는 라이프 프로그램
- ▲마음치유 프로그램인 마음 돌봄
- ▲자신의 강점을 발견해 개발해 주는 강점 리더십 교육 등을 운영한다.

해외 봉사단 한국어 자원봉사
최용원 (편제)

최용원 사우가 '전 세계 이웃을 돕고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국 정부 파견 해외 봉사단(World Friends Korea)」의 자원봉사자로 선정돼 지난달(10월) 16일 캄보디아 반테이민체이주 시소폰시에 위치한 국립 민제이대학교로 파견됐다. 현지에서 2년간 체류하며 한국어를 가르친다.

명예 아나운서 패수여
이현우 (편제)

이현우 사우(한국 아나운서클럽 회장)는 지난 9월 25일 경남 창원 영원무역 본사 컨퍼런스 룸에서 방송 문화와 아나운서들의 활동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영원무역의 성기학 회장에게 클럽 창립 이래 처음으로 명예 아나운서 패를 수여하고 방송문화 발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에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콜롬비아에서 한국어 교원
이길섭 (편제)

「세종학당재단」의 해외 한국어 교원으로 선정돼 남미 콜롬비아의 보고타시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던 이길섭 사우가 2년간의 근무 계약 기간을 마치고 최근 귀국했다.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4번째로 큰 면적을 가진 나라로 최근 한류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K-culture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p>황 헌(보도) 1984년 기자 입사 보도국 기자, 파리특파원 논설위원, 뉴스앵커 현 경기대 특임교수, 작가 2018년 퇴직</p>	 <p>전동건(보도) 1991년 기자 입사 보도국 기자, 보도제작국장 울산문화방송 사장 2024년 퇴임</p>	 <p>김상철(편제) 1987년 영상미술국 입사 드라마, 예능, 다큐 촬영, 스포츠 중계 2025년 정년퇴직</p>	 <p>김상철(기술) 1991년 방송기술직 입사 프로그램 제작기술, 편집 정책기획부 근무 보도기술부장 2025년 정년퇴직</p>
 <p>조명기(기술) 1985년 방송기술직 입사 음향, 주조, 부조, 중계 업무 2020년 정년퇴직</p>	 <p>송병락(보도) 1994년 뉴스편집2부 입사 아침뉴스 VCR 진행, 뉴스영상편집 2025년 정년퇴직</p>	 <p>장혜영(관리) 1985년 관리직 입사 대외협력팀장, 비서팀장, 인사부장, 감사국장 MBC플러스 부사장 2024년 퇴임</p>	 <p>이보경(보도) 1987년 기자 입사 보도국 통외교부, 사회부,국제부 논설위원실, 심의국 2024년 정년퇴직</p>
 <p>이규화(편제) 1984년 방송운행PD 입사 광고, 문화사업, 행사 방송운행총괄PD 2019년 정년퇴직</p>	 <p>김지수(관리) 1986년 라디오국 입사 시청자홍보부장, R심의부장, 홍보국 국장 2021년 퇴직</p>	 <p>민병우(보도) 1993년 기자 입사 보도본부장, MBC플레이비 사장 현 문화방송 감사</p>	 <p>이호인(보도) 1991년 기자 입사 워싱턴 특파원, 선거방송기획담당장 현 여수문화방송 사장</p>

경조사항

구 순: 김옥균(편제) 36.11.25. 이승대(전주) 36.11.30. 김병택(편제) 36.12.13.
정진철(보도) 36.12.31.

팔 순: 이승재(기술) 46.11.21. 전종철(관리) 46.11.26. 황길수(보도) 46.12.21.
이두표(업무) 46.12.29. 윤병건(편제) 47.01.13.

고 희: 정호준(기술) 56.11.18. 김상균(편제) 56.11.23. 박성희(관리) 56.12.08.
이병윤(편제) 56.12.13. 손규현(관리) 56.12.15. 홍성추(기술) 56.12.24.
최정순(관리) 56.12.25. 이은규(편제) 56.12.30. 송승중(편제) 56.12.30.
신선희(편제) 57.01.02. 박승규(보도) 57.01.04. 민현기(편제) 57.01.14.

회 갑: 강지현(관리) 65.12.11.

결 혼: 엄영수(편제) 아들 10.18 양영석(관리) 따님 10.26 윤만석(관리) 따님 11.16
부 음: 조창호(보도) 모친상 9.7 김태현(편제) 장인상 9.19 하병호(기술) 모친상 10.2
이진섭(편제) 장모상 10.18 김근중(관리) 장모상 10.19

연회비

평생회비: 황 헌(보도) 전동건(보도) 김상철(편제) 김상철(기술) 조명기(기술) 송병락(보도)
장혜영(관리) 이보경(보도) 임왕석(보도) 김지수(관리) 이규화(편제) 민병우(보도)
이호인(보도)

2025년: 이은숙(관리) 방남순(ANN) 오정우(관리) 김철영(편제) 김경일(관리) 노홍식(편제)
박창순(대전) 김중연(편제) 이준환(C&I) 이호석(관리) 이대호(편제) 이재원(전주)
문진영(보도)

2027년: 서정훈(보도)

주소변경/신규

편 제 정상자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27 (도곡동, 우성리빙텔)
이태희 부산 수영구 수영로 479 (남천동, 화목타운)
김상철 서울 구로구 개봉로20길 6 (개봉동, 현대아파트1단지)
채규태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38번길 24 (목현리, 보람빌라트)
이규화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8로 365 (구래동, 구래역화성파크드림)

류달훈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로 94-1 (인보리)
이명자 서울 강서구 양천로 595 (염창동, 염창금호타운아파트)
ANN 김창욱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15 (구미동, 국동빌라)
보 도 오수해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17길 16 (화곡동) 성일빌라
한병우 서울 강남구 자곡로 260 (자곡동, 강남한양수자리아파트)
함상호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 16 (구갈동, 기흥역 더퍼스트푸르지오)
전인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술로 124 (e편한세상 용인 한술시티)
조기양 경기 과천시 희망4길 37-7 (중앙동)
김용철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23번길 35 (풍덕천동, 수지광고산아이파크)
전동건 서울 서초구 방배로37길 26-9 (방배동, 쌍용에가클래식)
황 헌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 (천호동, 대우 한강 베네시티)
임왕석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14 (당산동5가, 당산 삼성 래미안)
이보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70 (주엽동, 문촌마을10단지아파트)
송병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131-11 (행신동, 행신3차에스케이뷰아파트)
민병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18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진홍상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90 (전농동, 전농우성아파트)
이호인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0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기 술 조명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22 (화정동, 달빛마을3단지아파트)
김상철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관 리 정남영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5 (울전동, 삼성아파트)
홍용선 인천 중구 자연대로 667 (운북동, 오션포레베네스트하우스)
김애경 경기 광주시 중앙로346번길 45-55 (송정동, 태영하이츠빌)
최한상 서울 관악구 관천로11길 106 (신림동)
위호인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14 (장현리, 하우스토리아파트)
김지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143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 1차)
오영근 인천 중구 은하수로 350 (중산동, 영종서희스타힐스)
최동윤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2 (홍은동)
전종철 서울 은평구 불광로 98-15 (불광동)
장혜영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14 (당산동, 삼성래미안)

인터뷰

장작개비가 다 탈 때까지 쓰겠다

박찬순(편제)



박찬순의 뜨거운 삶

“제 책의 절반까지 읽는 중이라고요? 내용이 어때요?”
 “정말 재미있어요”
 “아! 그런가요?” 전화기 너머로 재미 있다는 내 말에 안도하는 듯한 박찬순 사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79세의 나이에 장편소설인 「난잎에 베이다」를 펴낸 작가에게도 가장 큰 보상은 독자로부터 재미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일 거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나이에 장편소설을 쓰다니.
 “이 소설을 쓰기 위해 15년이 걸렸어요. 더 끌면 안 되겠다 싶었지요. 원래

1500매 매였는데 출판사에서 900매로 줄이라고 해서,, 이 작업을 끝내느라 몸이 기진맥진한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박 사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결기가 살아있었다.
 박 사우의 문학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결혼하면서 라디오 PD를 그만두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방송사에서 영화 번역을 더하기 시작했다.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했죠. 다행히 더빙작업이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도 했다.
 그런데 문득 언제까지 남의 작품만 번역하고 있을까? 하는 회의(懷疑)가 박 사우의 인생을 다시 움직였다. 신춘문예에 응모해 다섯 번의 고배를 마시고 여섯 번째 도전 끝에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에서 당선된 것이다.
 2006년 1월 1일 자 신년호 신문에 자신의 글이 실린 것에 놀란 게 아니라 “내가 60살이라는 사실을 나 자신이

모르고 있었다는 데 놀랐다”고 말하는 박 사우. “내 나이에 신춘문에 당선이라니...세상에!”
 자신의 나이를 잊고 살 만큼 박 사우의 삶은 뜨거웠다. 당선 이후 소설집 4권을 내며 작품활동을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장편소설을 완성했다. “나이를 부각하는 건 솔직히 싫어요. 작가들은 나이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박 사우의 단호한 어조에는 현역으로 살아가는 작가의 자존심이 역력했다.
 그러함에도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60살에 등단해 79살에 장편을 낸 저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라고. “저를 작가로 인정해 줬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 기회를 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공부를 더 하고, 예전에 본 것이라도 또 보고, 그저 죽을 때까지 고군분투하는 거죠. 장작개비가 다 탈 때까지 원하는 일 하다가

꼬꾸라질 때까지...”
 사우들에게 해 주실 말씀을 물었더니, “다들 저마다 잘 살고 계시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다만 남은 불씨라도 꺼뜨리지 마시길...”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박 사우의 목소리는 담담하고 조용했지만, 듣는 나는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궈졌다. “그래, 내게도 아직 할 일이 있어, 이런저런 변명하지 말고, 나이와 시간을 뛰어넘어 삶의 의지를 글로 증명하는 박 사우의 불꽃 같은 삶을 닮아보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다른 이를 감동하게 하는 참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신 박찬순 작가가 우리 사우회의 소속임을 두고두고 자랑하고 싶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류병대(기술)
 9월 8일 별세, 향년 84세
 1970년 기술국 입사
 기술운영부 부국장



최양묵(편제)
 9월 29일 별세, 향년 83세
 1968년 PD 입사
 교양제작국 기획제작부장, 사업국장
 MBC프로덕션 사장



고규군(기술)
 9월 28일 별세, 향년 82세
 1969년 기술국 입사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



은정기(관리)
 10월 5일 별세, 향년 82세
 1969년 총무국 입사
 발간실 근무



권해옥(감사)
 10월 10일 별세, 향년 90세
 1985년 문화방송 감사
 13대, 14대 국회의원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



정태식(기술)
 11월 1일 별세, 향년 75세
 1977년 방송기술 입사
 TV송출부장
 MBC미디어텍 이사

MBC사우회 | C&G라이프 상조서비스(박성준 대표) 010-8761-6643
 협약업체 | 네오블루매 플라워(박건미 대표) 010-3343-8973

발전 기금을 주신 분들 (9월 16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위호인(관리) 100만원



박신서(편제) 30만원



김태현(편제) 30만원



박한성(관리) 30만원



장한진(관리) 30만원



이경재(관리) 20만원



오청엽(관리) 20만원



염영수(편제) 10만원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이사장을 역임하고 지난 6월 퇴임한 위호인 사우가 늦었다며 발전기금을 전했다. 봉사과 나눔의 실천을 사우회로 연결 해주신 마음이 아름답고 고맙습니다

발전기금 납부 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2025년 사우회 송년의 밤

- ◆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요일) 오후 5시
- ◆ 장 소: 아모리스 역삼
- ◆ 참가신청: 11월 20일까지
- ◆ 초청공연: 가수 서유석, 코미디언 엄영수와 함께하는 토크와 노래

정동레터

♥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젠슨 황, 이재용 그리고 정의선, 세상 부러울 게 없는 3명의 억만장자가 서울의 치킨집에서 치맥으로 러브 샷을 보여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터...올해 사우회 모임에서 멋진 러브샷을 날려요~
 ♥ 연말 사우회 모임에서 공연을 할 서유석 씨, 그는 가수이기도 하지만 방송 프로그램 앵커, DJ로서 못하는 게 없는 방송인인데 그의 지난시절 이야기는 한편의 흥미진진한 베스트셀러네요

♥ 9월~10월 두 달 동안 사우회에 입회하신 분이 12명이나 됩니다. 함께 웃고 나눌 얼굴이 많아 졌다는 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우회 사무실이 따뜻한 11월입니다.
 ♥ 11월 사우회보에서 **오타자를 찾아** 편집장(윤영무, 010-5384-0035)에게 제일 먼저 알려 주시는 사우에게 **'스타벅스 커피'** 선물을 휴대폰에 쏘아 드립니다. 열독과 세심함으로 **즐거운 동참을 !!** 부탁드립니다 ^^
 편집부

출연자 화제성 김연경 1위!
일요일 비드라마 화제성 1위!

10월 3주차 TV-OTT 비드라마



일요일 전체 시청률 1위!

10/19 방송분 2049기준

방송 회차 연장 확정!

일요일 예능 최강자

신인감독

김연경

매주 일요일 밤 9시 10분 방송 **MBC**